

## 미니테스트 제 4 회

문 1.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2020행언나-06

① 수사 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자에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를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는 피의자로 기소되어 법정에서 미란다에 대한 재판을 통해 확립되었다. 미란다는 변호인은 “경찰관이 미란다에게 본인의 진술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쓰인다는 사실과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으므로 미란다는 자백은 공정하지 않고, 따라서 미란다는 자백을 재판 증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미란다가 자신에게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안 상태에서 분별력 있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경찰관의 신문에 진술했어야 하므로, 경찰관이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신문 결과만으로 얻어진 진술은 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② 미란다 판결 전에는 전체적인 신문 상황에서 피의자가 임의적으로 진술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즉 임의성의 원칙이 지켜졌다면 재판 증거로 사용되었다. 이때 수사 기관이 피의자에게 헌법상 권리를 알려주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았다. 경찰관이 고문과 같은 가혹 행위로 받아낸 자백은

효력이 없지만, 회유나 압력을 행사했더라도 제때에 음식을 주고 밤에 잠을 자게 하면서 받아낸 자백은 전체적인 상황이 강압적이지 않았다면 증거로 인정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되었으며 수사 기관으로 하여금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유도했으므로, 구금되어 조사받는 상황에서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해야 할 수단이 필요했다.

③ 수사 절차는 본질적으로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수사 기관과 피의자 사이에 힘의 균형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미란다 판결이 제시한 원칙은 수사 절차에서 수사 기관과 피의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법적 다툼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구현하는 첫출발이었다. 기존의 수사 관행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미란다 판결은 자백의 증거 능력에 대해 종전의 임의성의 원칙을 버리고 절차의 적법성을 채택하여, 수사 절차를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 ① 미란다 원칙을 확립한 재판에서 미란다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 OK
- ② 미란다 판결은 피의자의 권리에 있어 임의성의 원칙보다는 절차적 적법성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 ③ 미란다 판결은 법원이 수사 기관이 행하는 고문과 같은 가혹 행위에 대해 수사 기관의 법적 책임을 묻는 시초가 되었다.
- ④ 미란다 판결 전에는 수사 과정에 강압적인 요소가 있었다라도 피의자가 임의적으로 진술한 자백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었다. →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 X
- ⑤ 미란다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피의자가 변호사 선임권이나 묵비권을 알고 있었다면 경찰관이 이를 고지하지 않아도 피의자의 자백은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재판에서 미란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는 제시되지 않음

② 고문과 같은 가혹 행위로 받아낸 자백은 미란다 판결 전에도 효력이 있었음

문 2. 다음 글의 ㉠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2020행언나-18

2020행언나-18

지금까지 알려진 적이 없는 어느 부족의 언어를 최초로 번역해야 하는 번역자 S를 가정하자. S가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민들의 언어 행동에 관한 관찰 증거뿐이다. S는 부족민들의 말을 듣던 중에 여러 번 ‘가바가이’라는 말소리를 알아들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눈앞에 토끼가 있다는 사실을 관찰했다. 이에 S는 ‘가바가이’를 하나의 단어로 추정하면서 그에 대한 몇 가지 가능한 번역어를 생각했다. 그것은 ‘한 마리의 토끼’라거나 ‘살아있는 토끼’ 등 여러 상이한 의미로 번역될 수 있었다. 관찰 가능한 증거들은 이런 번역 모두와 어울렸기 때문에 S는 어느 번역이 옳은지 결정할 수 없었다.

2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 이론 A는 전체의 의미로부터 그 구성요소의 의미를 결정하고자 한다. 즉, 문제의 단어를 포함하는 문장들을 충분히 모아 각 문장의 의미를 확정 한 후에 이것을 기반으로 각 문장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려는 것이다. 이런 점은 과학에서 단어의 의미를 확정하는 사례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분자’의 의미는 “기체의 온도는 기체를 구성하는 분자들의 충돌에 의한 것이다.”와 같은 문장들의 의미를 확정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장들의 의미는 수많은 문장들로 구성된 과학 이론 속에서 결정될 것이다. 결국 과학의 단어가 지니는 의미는 과학 이론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L.

## —〈보기〉

7. “고래는 포유류이다.”의 의미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유류’의 의미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은 ㉠을 강화한다.

㉔. 뉴턴역학에서 사용되는 ‘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뉴턴 역학에 의거하여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은 ㉔을 강화한다.

㉔ 토끼와 같은 일상적인 단어는 언어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 증거만으로 그 의미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은 ㉑을 약화한다.

- ①  $\neg$   
③  $\neg, \sqsubset$   
⑤  $\neg, \sqcup, \sqsubset$
- ②  $\sqcup$   
~~④~~  $\sqcup, \sqsubset$

이로  $A$  = 물량의 의미 먼저 확정

→ 문장의 구성요소로서 단어의 의미 형성

→ 문장의 의미보다 단어의 의미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  
(이론 A와는 반대)

## 과장 이론

→ 문장의 의미를 먼저 확장할 필요

문 3. 다음 대화의 ㉠에 따라 <계획안>을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칠언모-07

갑: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보고서 작성법 특강’의 개최계획 검토를 위한 자리입니다. 특강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을: 특강 참석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고 그에 따라 개최 일시가 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계속 근무하는 현직 공무원인 경우, 아무래도 주말에는 특강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특강을 평일에 개최하되 참석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준다면 참석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병: 공무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예비공무원들에게는 서울이 더 낫겠지만,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에게는 세종시가 접근성이 더 좋습니다. 특강 참석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장소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 주제가 너무 막연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의 형식이나 내용은 누구에게 보고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보고 대상이 명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제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무: 특강과 관련된 정보가 부족합니다. 강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별도 비용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금액은 어떠한지 등이 궁금할 겁니다.

갑: 얼마 전에 비슷한 특강이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니 이번 특강은 현직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강 수강 비용은 무료입니다.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특강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계 획 안> —

보고서 작성법 특강

- 주제: 보고서 작성 기법
- 일시: 2021. 11. 6.(토) 10:00 ~ 12:00
- 장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5층 대회의실
- 대상: 현직 공무원 및 공무원을 꿈꾸는 누구나

- ① 주제를 ‘효율적 정보 제시를 위한 보고서 작성 기법’으로 변경한다. → 보고 대상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음
- ② 일시를 ‘2021. 11. 10.(수) 10:00 ~ 12:00(특강 참여 시 근무 시간으로 인정)’으로 변경한다.
- ③ 장소를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로 변경한다.
- ④ 대상을 ‘보고서 작성 능력을 키우고 싶은 현직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변경한다.
- ⑤ 특강을 듣기 위한 별도 부담 비용이 없다고 안내하는 항목을 추가한다.





문 5. 다음 <표>는 6개 지목으로 구성된 A 지구의 토지수용 보상비 산출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0행자나12

<표> 지목별 토지수용 면적, 면적당 지가 및 보상 배율  
(단위: m<sup>2</sup>, 만 원/m<sup>2</sup>)

지목	면적	면적당 지가	보상 배율	
			감정가 기준	실거래가 기준
전	50	150	1.8	3.2
답	50	100	1.8	3.0
대지	100	200	1.6	4.8
임야	100	50	2.5	6.1
공장	100	150	1.6	4.8
창고	50	100	1.6	4.8

- ※ 1) 총보상비는 모든 지목별 보상비의 합임.  
2) 보상비 = 용지 구입비 + 지장물 보상비 =  $a + 0.2a = 1.2a$   
3) 용지 구입비 = 면적 × 면적당 지가 × 보상 배율 =  $a$   
4) 지장물 보상비는 해당 지목 용지 구입비의 20%임.  
 $= 0.2a$

- <보 기>
- ㄱ. 모든 지목의 보상 배율을 감정가 기준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 총보상비는 변경 전의 2배 이상이다.
  - ㄴ. 보상 배율을 감정가 기준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 보상비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지목은 '대지'이다.
  - ㄷ. 보상 배율이 실거래가 기준인 경우, 지목별 보상비에서 용지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임야'가 '창고'보다 크다.
  - ㄹ. '공장'의 감정가 기준 보상비와 '전'의 실거래가 기준 보상비는 같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ㄴ, ㄹ

→  $\frac{a}{1.2a}$ 로 동일함.  
→  $\cancel{100} \times \cancel{150} \times 1.6$  vs  $\cancel{50} \times \cancel{150} \times 3.2$   
2

프라임 PSAT 온라인 스테디 미니테스트 제 4 회

문 6. 다음 <표>는 2018년 5~6월 A군의 휴대폰 모바일 앱별 데이터 사용량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9행사가-31

<표> 2018년 5~6월 모바일 앱별 데이터 사용량

앱 이름 \ 월	5월	6월
G인터넷	5.3 GB	6.7 GB +
HS쇼핑	1.8 GB	2.1 GB +
톡톡	2.4 GB	— 1.5 GB
앱가게	2.0 GB	— 1.3 GB
뮤직플레이	94.6 MB	570.0 MB +
위튜브	836.0 MB	— 427.0 MB
쉬운지도	321.0 MB	337.0 MB +
JJ멤버십	45.2 MB	240.0 MB +
영화예매	77.9 MB	— 53.1 MB
날씨정보	42.8 MB	45.3 MB +
가계부	—	27.7 MB
17분운동	—	14.8 MB
NEC뱅크	254.0 MB	— 9.7 MB
알람	10.6 MB	— 9.1 MB
지상철	5.0 MB	7.8 MB +
어제뉴스	2.7 MB	— 1.8 MB
S메일	29.7 MB	— 0.8 MB
JC카드	—	0.7 MB
카메라	0.5 MB	— 0.3 MB
일정관리	0.3 MB	— 0.2 MB

- ※ 1) ‘—’는 해당 월에 데이터 사용량이 없음을 의미함.  
2) 제시된 20개의 앱 외 다른 앱의 데이터 사용량은 없음.  
3) 1 GB(기가바이트)는 1,024 MB(메가바이트)에 해당함.

- ① 5월과 6월에 모두 데이터 사용량이 있는 앱 중 5월 대비 6월 데이터 사용량의 증가량이 가장 큰 앱은 ‘뮤직플레이’이다.  
② 5월과 6월에 모두 데이터 사용량이 있는 앱 중 5월 대비 6월 데이터 사용량이 감소한 앱은 9개이고 증가한 앱은 8개이다.  
③ 6월에만 데이터 사용량이 있는 모든 앱의 총 데이터 사용량은 ‘날씨정보’의 6월 데이터 사용량보다 많다.  
④ ‘G인터넷’과 ‘HS쇼핑’의 5월 데이터 사용량의 합은 나머지 앱의 5월 데이터 사용량의 합보다 많다.  
⑤ 5월과 6월에 모두 데이터 사용량이 있는 앱 중 5월 대비 6월 데이터 사용량 변화율이 가장 큰 앱은 ‘S메일’이다.

문 7. 다음 <표>는 Z 리그 A ~ G 족구팀의 경기 결과이다. <표>와 <조건>에 근거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0행자나-39

<표> Z 리그 족구팀 세트 스코어와 최종 승점

총 세트수  
(14)

구분 팀	1경기	2경기	3경기	4경기	5경기	6경기	승패	최종 승점
A	0:2	0:2	( )	( )	( )	0:2	2승 4패	6
B	2:1	2:0	0:2	1:2	0:2	1:2	2승 4패	7
C	1:2	2:0	0:2	2:1	2:0	2:1	4승 2패	11
D	2:0	1:2	2:0	2:0	2:0	2:1	5승 1패	15
E	(2:1)	(2:1)	1:2	0:2	(2:1)	0:2	3승 3패	(7)
F	0:2	0:2	2:0	2:0	2:0	2:0	4승 2패	12
G	1:2	2:0	0:2	0:2	0:2	1:2	1승 5패	5

3+2+2+2  
+2+3=14

※ 세트 스코어에서 앞의 수가 해당 팀이 획득한 세트 수임. 63

<조 건>

- 한 팀이 다른 모든 팀과 각각 1번씩 경기한다.
- 한 경기에서 2세트를 먼저 획득한 팀이 승리한다.
- 세트 스코어가 2:0인 경우 승리팀에 승점 3점 및 패배팀에 승점 0점을 부여하고, 세트 스코어가 2:1인 경우 승리팀에 승점 2점 및 패배팀에 승점 1점을 부여한다. → 한 경기당 승점의 합은
- 경기한 총 세트 수는 A와 G가 같다. 예상 3.

<보 기>

- ㉠ 모든 팀 최종 승점의 합은 60점 이상이다.
- ㉡ E가 승리한 경기의 세트 스코어는 모두 2:1이다.
- ㉢ A가 2:0으로 승리한 경기 수는 1개이다.

- ①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7. \text{총 경기 수} = 7C_2 = \frac{7 \times 6}{2 \times 1} = 21$$

$$\therefore \text{최종 승점 합} = 21 \times 3 = 63$$

$$D. E의 \text{최종 승점} = 63 - (6+7+11+15+12+5) = 7$$

∴ 1, 2, 5 경계에서는 승점 2점씩 얻어야 함  
(2:1로 승리)

D. A의 3, 4, 5 경기

- 경기 결과: 2승 1패

$$- \text{세트 수 합계} = 14 - 6 = 8$$

∴ 가능한 경우

$$\rightarrow 2:0 \text{ 1번}, 2:1 \text{ 1번}, 1:2 \text{ 1번}$$

$$3 + 2 + 1 = 6 \text{ (승점)}$$

문 8.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2020년 5월 16일 현재  
공무원 신분인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2020행상나-21

- 제0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의 과실로 인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무원 신분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③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 제00조 ①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 ②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제00조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 <상 황>—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다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중인 甲 → 공무원 신분 유지 가능
  - 결격사유 없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가 금고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乙 → 당연히 퇴직됨
  - 결격사유 없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가 비위행위를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아 정직 중에 있는 丙 → 공무원 신분 유지 가능
  -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국가의 과실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중인 丁 → 공무원 신분 발생 X
  - 결격사유 없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0년 3월 31일 정년에 이른 戊 → 6월 30일에 당연히 퇴직되므로 5월 16일에는

- ① 甲, 丁
- ② 乙, 丁
- ③ 甲, 丙, 戊
- ④ 乙, 丙, 戊
- ⑤ 甲, 乙, 丁, 戊

\*집행유예 기간: 1~5년 (형법 제62조 제1항)

공무원 신분 유지 가능



문 9.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0행상나-31

甲 ~ 戊로 구성된 A팀은 회식을 하고자 한다. 회식메뉴는 다음의 <메뉴 선호 순위>와 <메뉴 결정 기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메뉴 선호 순위>					
팀원 \ 메뉴	탕수육	양고기	바닷가재	방어회	삼겹살
甲	3	2	1	4	5
乙	4	3	1	5	2
丙	3	1	5	4	2
丁	2	1	5	3	4
戊	3	5	1	4	2

합산 순위 15 12 13 20 15  
<메뉴 결정 기준>

- 기준1: 1순위가 가장 많은 메뉴로 정한다. → 바닷가재
- 기준2: 5순위가 가장 적은 메뉴로 정한다. → 탕수육
- 기준3: 1순위에 5점, 2순위에 4점, 3순위에 3점, 4순위에 2점, 5순위에 1점을 부여하여 각각 합산한 뒤, 점수가 가장 높은 메뉴로 정한다.
- 기준4: 기준3에 따른 합산 점수의 상위 2개 메뉴 중, 1순위가 더 많은 메뉴로 정한다.
- 기준5: 5순위가 가장 많은 메뉴를 제외하고 남은 메뉴 중, 1순위가 가장 많은 메뉴로 정한다. → 양고기

- <상 황>—
- 丁은 바닷가재가 메뉴로 정해지면 회식에 불참한다.
  - 丁이 회식에 불참하면 丙도 불참한다.
  - 戊는 양고기가 메뉴로 정해지면 회식에 불참한다.

- <보 기>—
- ㄱ. 기준1과 기준4 중 어느 것에 따르더라도 같은 메뉴가 정해진다. → 바닷가재로 정해짐
  - ㄴ. 기준2에 따르면 탕수육으로 메뉴가 정해진다.
  - ㄷ. 기준3에 따르면 모든 팀원이 회식에 참석한다. → 戊 불참
  - ㄹ. 기준5에 따르면 戊는 회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합산 순위가 가장 낮은 메뉴  
→ 양고기  
→ 양고기 vs 바닷가재

문 1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서연이가 구매할 가전제품과 구매할 상점을 옳게 연결한 것은? 2020행상나-28

○ 서연이는 가전제품 A ~ E를 1대씩 구매하기 위하여 상점 甲, 乙, 丙의 가전제품 판매가격을 알아보았다.

<상점별 가전제품 판매가격>

(단위: 만 원)

구분	A	B	C	D	E
甲	150	50	50	20	20
乙	130	45	60	20	10
丙	140	40	50	25	15

○ 서연이는 각각의 가전제품을 세 상점 중 어느 곳에서도 구매할 수 있으며, 아래의 <혜택>을 이용하여 총 구매액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혜택>

- 甲: 200만 원 이상 구매시 전품목 10% 할인

- 乙: A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C, D를 20% 할인

- 丙: C, D를 모두 구매한 고객에게는 E를 5만 원에 판매

- ① A - 甲 ~~乙~~
- ② B - 乙 ~~丙~~
- ③ C - 丙 ~~乙~~
- ④ D - 甲 ~~乙~~
- ⑤ E - 乙

甲:  $A+C = (150+50) \times 0.9 = 180$   
 $B+D+E = 40+20 \times 0.9+10=68$   
 $\therefore \Sigma = 248$

乙:  $A+C+D = 130+(60+20) \times 0.8 = 194$   
 $B+E = 40+10=50$   
 $\therefore \Sigma = 244$  (小)  $\rightarrow$  B만 丙에서, 나머지는 乙에서 구입

丙:  $C+D+E = 50+25+5=80$   
 $A+B = 130+40=170$   
 $\therefore \Sigma = 250$